

# 남수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8
V. 종합의견 .....	9

## I. 일반개황

면적	644천 km <sup>2</sup>	G D P	-
인구	10.1백만 명 (2012)	1 인 당 GDP	-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South Sudanese Pound
대외정책	-	환 율(달러당)	2.95

-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공화국(Republic of South Sudan)은 2011년 7월 9일에 독립한 신생국임. 1956년 수단(Republic of Sudan)의 독립 이후 남북간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오랜 내전이 지속된 끝에 2005년 1월 체결된 평화 협정에 따라 남수단 자치 정부가 출범되었으며, 동 협정을 근거로 2011년 남수단 국민투표를 거쳐 분리·독립하였음. 한반도의 2.9배에 달하는 국토와 10.1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분리 전 수단은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이었는데, 전체 원유매장량 67억 배럴 중 약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는 반면 정유시설, 원유수출용 파이프라인, 항구는 수단<sup>1)</sup>에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 수출과 관련된 수단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대체 수송로의 개발이 남수단의 가장 큰 경제적 현안임.
- 석유 외에도 철, 금, 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농경지 등 농업부문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살바 키이르(Salva Kirr Mayardit) 초대 대통령과 수단인민해방운동(SPLM: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이 정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나, 반군의 무장공격에 따른 유혈사태,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빈발하는 등 정권 정착과정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1) 남수단의 분리독립 후 북부의 수단공화국을 지칭함. 이하 동일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원유생산 중단으로 2012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남수단은 수송중이던 원유를 수단이 일방적으로 압류한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년 1월부터 대부분의 유전에서 원유생산을 중단하였음.

- 석유산업이 GDP의 71%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상 원유생산의 중단은 GDP의 급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2012년 8월초 수단과의 송유관 사용료 관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9월부터 원유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나,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1년 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 남수단은 원유 수출을 위하여 수단의 송유관을 사용하는데 대해 3.5년간 배럴당 평균 9.48 달러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수단에 30.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 사용료는 3.5년 후 재협상토록 하였으나, 남수단은 그 이전에 케냐 등지에 대체 송유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임.

○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 증대, 해외원조와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침체된 경제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원유생산량 전망(천 배럴/일): 177(2011<sup>e</sup>) → 60(2012<sup>f</sup>) → 328(2013<sup>f</sup>)

-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인접국의 기업들이 남수단의 건설업, 제조업, 전기·통신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남수단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GDP는 130억 달러, 1인당 GDP는 1,546 달러이며, 이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 원유수입(收入) 급감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록 전망

- 원유생산 중단으로 재정수입의 98%를 차지하는 석유수입(收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2012년 재정수지 적자 기록 전망
  - 재정수입 급감에 따라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긴축재정을 실시하였으며, 2012/13 회계연도에도 지출을 약 22억 달러(SSP 65억) 수준으로 통제하는 긴축재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 \* 예산 규모: SSP 94억 (2011/12) → SSP 65억 (2012/13)
  -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삭감, 인프라 개발 및 사회부문 지출 감소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등 비석유부문 수입 증대, 광업채굴권의 양도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할 계획임.
- 그러나 일단 원유생산이 재개되면 재정수입 및 지출의 규모가 모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물자 부족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 지속

- 주요 교역 대상인 수단이 석유수입 배분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주요 물품의 공급 제한과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남수단을 압박
  - 이에 따라 말라칼(Malakal)과 같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또한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한 달러 부족과 환율약세가 수입물가 급등을 야기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
  - 공식환율은 달러당 SSP2.95이나, 시장환율은 SSP5.7에 이르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5월 한때 80%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7월에는 60.9%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2012년 연평균 65%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3년에는 원유생산 재개와 국제 식품가격의 소폭 하락 전망으로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수입이 GDP의 약 71%, 재정수입의 약 98%(201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 오랜 내전으로 인한 취약한 인프라

- 오랜 내전으로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포장도로는 48km에 불과하며 유일한 발전소는 디젤엔진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임.
- UN에 따르면 수단은 인간개발지수에서 169개국 중 154위임. 남수단의 경제적 궁핍은 더욱 심각하여 인구의 90%가 1일 소득이 50센트 미만인데다 80%가 움막에 거주하며 문맹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외국 자본의 국내경제 장악

- 경제의 주축인 석유산업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여 원유를 탐사, 개발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산유량의 90%를 중국의 CNPC, 인도의 ONGC, 말레이시아의 PNBPA가 차지하였음.
  - 특히 중국은 유전 개발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단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 중국은 1995년부터 수단의 원유 개발에 참여하여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 4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였음.
- 외국인들은 상당 규모의 토지와 주요 상업시설도 장악하고 있음. 2007~10년에 26,300km<sup>2</sup>의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주요 상업시설은 대부분 인접국의 자본가들이 운영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원유, 광물자원, 산림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수단은 원유 매장량이 67억 배럴로 아프리카 5위였는데 이 중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으며, 철, 금, 은, 구리, 석탄, 우라늄 등의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티크, 마호가니 등 원목류와 아라비아고무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함.
  - 특히 고무의 경우, 수단은 독립 이전에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수출국으로 나이지리아, 차드 등과 함께 중요한 아라비아 고무의 공급원임.

### □ 농업 및 생태관광업 부문에 잠재력 보유

- 남수단의 백나일 계곡(White Nile valley) 지역은 아프리카 내 비옥한 농토 중 하나로 손꼽히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함. 또한 백나일강(White Nile)을 활용한 대규모 수력발전도 가능함.
- 동 지역에 현재 1,000만~2,000만 마리의 소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생태 관광업 개발 잠재력 보유

## 다. 정책성과

### □ 해외 원조 및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정부는 도로, 수도, 전력설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성과는 미흡한 수준
  - 정부 내부의 부패와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원유생산 중단에 따른 정국불안 등으로 원조 및 투자자금 유입은 제한적이었음.
  - 2011년중 중국은 남수단 교육·보건 분야에 3.2백만 달러를 지원, 미국은 고속도로(주바~우간다) 건설에 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탈리아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5,000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음.

- 지난 8월 IMF가 남수단을 양허성 차관 공여 적격국으로 인정하였고 남북수단간 원유협상 타결로 원유생산이 재개될 예정임에 따라, 해외원조 및 투자자금의 유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주변국들은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신생국 시장의 선점을 기대하는 신규 외국인투자도 기대됨.

□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 집중 육성 방침
  - 에티오피아 등 인접국에 비해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계획임.
  - UN 식량농업기관(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으로부터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지원을 받은 바 있음.

3. 대외거래

□ **원유 수출의 급감으로 상품·경상수지 적자 전망**

- 원유생산 중단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012년 상품수지가 적자전환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경상수지도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2013년에는 원유생산 재개에 따른 원유수출량의 회복, 원조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증가, 농업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농산품 수입규모 축소 등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될 전망
  - 원유수출액 전망(백만 달러) : 5,894(2011<sup>e</sup>) → 1,900(2012<sup>f</sup>) → 10,280(2013<sup>f</sup>)

<표 1>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 <sup>e</sup>	2012 <sup>f</sup>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23	-11	24
상 품 수 지	43	-6	78
수 출	59	13	103
수 입	16	19	25

자료: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키이르 대통령과 SPLM의 정권 장악

- 독립 후의 초대 대통령은 종전 수단 부통령이자 남수단 자치정부 수반인 살바 키이르임. 키이르 대통령은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의 창설자로서 22년간 내전을 주도하였으며 2005년에 존 가랑 당시 수상이 사망한 이후 남부 자치정부의 권력을 승계하였음.
- SPLM이 초대 국회의 의석 중 약 94%(159석)를 차지하며 거의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당분간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반군과의 마찰 및 인종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반군과의 무력충돌 사태 및 인종간 유혈사태 발생

- 정부군인 수단인민해방군(SPLA: Sudan Peoples Libaeration Army)과 반군 간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2011년 10월 28일 Mayom에서 반군의 공격으로 75명의 군인과 경찰,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UDF(United Democratic Front)<sup>2)</sup>의 당대표가 정부에 대한 무장반란을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었음.
  - Jonglei 등지에서는 인종간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 국경지대에서의 무력충돌 지속 전망

- 정부는 수단정부와 국경구획 및 채무분배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경지대에서의 무력충돌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2) 2011년 초에 남수단의 독립에 반대했던 정당들 중 하나임.

### 3. 국제 관계

#### □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남수단은 2011년 7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93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대부분의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음.
- 미국은 수단에 대한 제재를 남수단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으며, 남수단 정부는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중국은 1995년부터 수단의 유전개발에 참여하여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일 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왔음.
- 독립일인 2011년 7월 9일 중국과 수교공보를 체결한 이후 중국이 남수단 교육·보건 분야에 3.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전망

#### □ 주변 국가들과 호의적 관계 형성 기대

- 우간다, 케냐 등 인접국은 수도 주바(Juba)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독립 이후에도 호의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과거 적대적 관계였던 이집트 또한 최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 □ 수단과는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지속

- 남북수단 관계는 남수단의 원유생산 중단으로 2012년 상반기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8월초 원유협상의 타결로 대치 국면은 일단락되었음. 이후 국경구획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어 단시일내 합의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 그러나 대체 수송로의 건설 전까지는 수단을 통한 원유 수출 및 교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향후 수년간은 갈등 속에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독립 이전에 수단의 외채규모는 총 380억 달러였으며, 독립 이후 이에 대한 배분율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와 3대 신용평가사는 남수단에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한-남수단간 외교관계 수립

- 정부는 그간 남수단 독립에 대비하여 민관합동사절단, 개발협력조사단 파견 및 제1차 한-남수단 정책대화 개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독립 후에는 남수단공화국 독립경축식에 대통령 특사로 특임장관을 파견하여 남수단의 독립을 축하하고, 한-남수단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남수단의 UN 가입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음.

#### □ 남수단 여권 제작 담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

- 2011년 4월에 남수단 내무부장관 일행이 방한하여 한국조폐공사와 남수단의 여권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량과 인도 시기 등을 협의하였음.
- 또한 남수단의 신수도 건설, 자원 및 건설, 유전 및 가스전 등의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바 있음.

## V. 종합 의견

- 남수단은 석유, 철, 금, 은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산업이 GDP의 71%, 재정수입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분리전 수단 전체 원유매장량의 약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으나 정유 시설, 원유수출용 파이프라인, 항구 등은 수단에 소재하고 있어, 최근 석유 수입 배분 관련 수단과의 합의내용의 원만한 이행, 나아가 수단 외의 대체 수송로 및 교역통로의 확보가 남수단의 성장잠재력 가시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2년에는 수단과의 갈등에 기인한 원유생산 중단으로 경제성장,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나, 2012년 8월 원유수입 배분 관련 남북수단간 협상 타결 및 원유생산 재개로 2013년에는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초대 대통령인 키이르 대통령과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의 정권 장악으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반군과의 대치 및 인종간 갈등 지속으로 치안 불안요소가 남아있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 전까지 국경지대에서 수단과의 갈등이 예상됨.
- 한편, 오랜 내전에 따른 각종 폐해, 즉 극히 부족한 인프라, 저투자, 높은 문맹률 등 해결하여야 할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절실한 상황이나, 만연한 부패와 예산 낭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금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책임조사역 조예림(☎02-3779-5720)

E-mail : [yrcho@koreaexim.go.kr](mailto:yrcho@koreaexim.go.kr)